



보이십니까?

청 림(清廉) [명사]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싱싱한 대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를것 같은 대나무가 어느 부분이 막혀 땅의 영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색을 잃고 썩어갑니다. 막힌 것이 뚫리지 않으면 계속 썩어갈 것입니다. 공동체 속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는 푸르른 대나무처럼 아름답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썩어가게 됩니다. 한 개인이 제모습을 잃어갈 때 공동체도 썩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Happy Together, KEPCO E&C  한국전력기술

201608



Family



newpower, newstandard



2016년 8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동반성장·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외

08 **칭백리** | 청렴윤리 만화 가이드북 배부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 **우체통** | Power Engineering School Epitogue 외

18 **일하며 즐기며** | 고리현장 한마음 걸쳐데이 행사를 마치며 외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6 **新성장지도** | 흐드러진 메밀꽃과 장터기행 - 봉평

32 **Storytelling** | 허위, 죽어서 지천(芝川) 방암산(枋岩山) 미좌원(未坐原)에 묻히다

34 **기자칼럼** | '원전 수출' 통한 '한류'를 기대하며

36 **생활과 과학** | 매미 소리는 왜 시끄럽게 되었나

38 **Culture** | Exhibition, Musical, Book, Movie

40 **KEPCO E&C NEWS** | 제1차 '더새롬 아카데미' 개최 외

42 **한기씨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4 **Inside Outside** | 참사랑봉사단 외

46 **인포메이션** |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 교환 후 운행 중 하루 만에 엔진오일 코크가 빠져 엔진오일 누출로 인한 엔진고장 차량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47 **에코포토** | 순리의 교훈



통권 415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6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동반성장·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 동반성장 추진전략 심포지엄 개최



‘한국전력기술 동반성장 추진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일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회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이행하고 동반성장·상생협력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회사의 동반성장 추진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반성장 정책 및 제도 전반 △한전기술의 동반성장 컨설팅 결과 발표 △동반성장 우수추진 사례 발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정화 경영협력본부장의 ‘뉴 노멀 시대의 동반성장’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동반성장 시책 평가위원인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한국서부발전 정문용 동반성장팀장이 발표에 나섰다. 이정화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저성장과 저고용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항구 박사는 동반성장 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한전기술이 공공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박구원 사장은 “이번 심포지엄 발표내용과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력교육,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및 국내외 공동사업수행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윤창출 및 판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동근 상임감사, UAE 바라카 및 ITER 현장 방문

이동근 상임감사는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UAE 바라카 및 ITER 현장을 방문했다. UAE 바라카 현장을 방문한 이동근 감사는 회사의 강도 높은 청렴의식 제고 노력을 소개하고,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회사 및 협력업체 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감사는 사막의 고온 다습한 악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청렴기념품 등을 전달하고,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프랑스 ITER 현장을 방문하여 연락사무소장 및 ITER 파견 직원들과 대화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동근 감사는 ITER 국제기구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ITER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년 6월 ITER 국제기구로부터 ITER CMA 사업 컨소시엄(KEPCO E&C, AMEC FW, ASSYSTEM)을 구성해 수주한 ITER CMA(건설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ITER사업에서 우리 회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협력업체 대상 기술교육 실시

-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동반성장 도모

회사는 2016년 상반기 협력업체 설계부문 맞춤형 기술교육을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된 교육은 26개 협력업체 13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원자력, 기계, 배관 등 기술분야 및 청렴윤리교육 등 9개 분야 총 3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과정별로 각 분야 설계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술수준 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교육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전기술에서는 청렴윤리의 생활화 및 회사 윤리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관계 구축에 있어 청렴윤리에 기반을 두고 이번 교육을 통해 원전산업계 모두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술 품질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설계부문 협력업체 사업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력업체 불편사항 청취와 교육소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육성 협력에 나선다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지역인재 육성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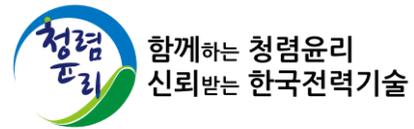


회사는 지난 6월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지역인재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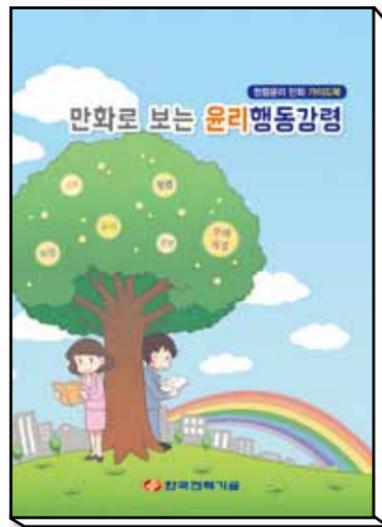
박구원 사장과 UNIST 정무영 총장이 체결한 협약은 △인적자원 역량강화 △학술행사 전문가 초빙 강연 등 관련 분야 인적자원 상호 교류 △심포지엄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연구개발 과제 공동 참여 △공공기관 이전 및 임직원 정착 등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원전 등 에너지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분야 인재육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북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지역 인재 육성과 취업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박구원 사장은 “이번 협약이 원자력 등 에너지분야 기술인재 양성에 큰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전기술은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IST 정무영 총장은 “UNIST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분야의 연구 역량과 한전기술의 실무 역량을 더하면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미래형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UNIST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특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은 에너지분야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의 산학협력 성공 모델로서도 기대가 된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8월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 후, 한동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북보건대학교 등 경북지역 대학교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청렴윤리 만화 가이드북 배부



회사는 청렴윤리 만화 가이드북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을 지난 7월 12일 발행했다. 청렴윤리 만화 가이드북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 및 회사 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 상황 및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구성하여 제작되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정보 & 재무관리 투명성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청렴윤리 만화 가이드북을 본부/단별로 배포하여 자체 청렴윤리 교육교재 및 대외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이라는 청렴윤리 슬로건을 실천할 방침이다.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실시

회사는 2016년도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지난 6월 16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윤리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및 우리 회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임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2016년~2017년 정년퇴직예정자와 본부별 행동강령책임자 등 윤리경영 유관부서 직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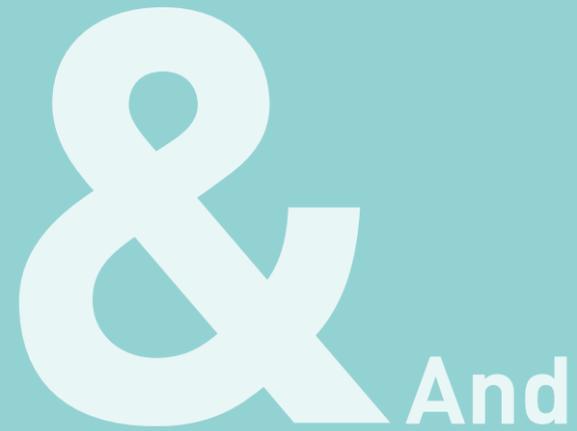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임급 이상 퇴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사규에 따른 주임급 이상 퇴직자의 퇴직 후 3년간 우리 회사 협력업체의 취업금지, 수석급 이상 퇴직자의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수석급 이상 업무내역 제출의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개최

회사는 지난 6월 14일, 2016년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 회사는 외부 청렴전문가 1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청렴시민감사관과 협의회 위원인 감사실 청렴담당 검사역, 인사처 윤리경영팀장 등이 참석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상황에 대한 상호토론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관련 직원의 교육 및 홍보,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여 논의했다. 또한, 2016년도 반부패 추진 기본계획과 윤리경영 종합 추진계획 그리고 올해 회사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제주행 비행기는 언제나 만석입니다.
방학이라 가족 동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지점 가운데 좌석에는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창가 쪽 손님이 제일 늦게 나타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비켜주면 좋으련만
젊은이는 앉은 채로 비키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몸집은 있고 들어 가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좀 들어갑시다.'
'들어주세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에 기가 눌렸는지 젊은이는 마지못해 일어섭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릅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며 갈까요.

비행기는 무사히 날아 제주 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 싸인 등이 꺼지자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섭니다.
선반이 열리고 크고 작은 짐들이 주인들의 손에 끌려 나옵니다.
앉아 있자니 머리 위가 매우 불안합니다.
빨리 일어선다고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닌데
통로는 복잡하고 좌석에서 일어난 손님들은
허리도 못 펴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기다립니다.
어차피 빨리 나가도 짐 찾는데 가서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제 성질에 못 이겨 서두릅니다.
병목 현상이 풀리자 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튜어디스가 두 손을 모으고 배꼽인사를 합니다.
유치원생 여자 아이가 큰소리로 대답합니다.

'언니 수고하세요.'

Power Engineering School Epilogue

첫 만남

설렘, 걱정, 기대, 두근거림을 안고 김천(구미) KTX역에 도착했다. 처음 와 보는 도시라 '이곳저곳 구경을 좀 해볼까?' 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주변에는 논과 밭과 산... 다시 역으로 돌아와 회사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한국전력기술에 도착했다. 허허벌판에 건물이 딱! 정말 높고 큰 건물에 우와~ 감탄사가 나왔다. 건축된지 얼마 안된 건물이라 내부도 깨끗하고 깔끔했다. 이것저것 서류를 작성하고 이름표와 방문증을 받았다. 잠깐이나마 한국전력기술의 사원이 된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앞으로 7일동안 교육 받을 교육장으로 들어갔다. 처음 본 사람들이라 어색하고 어색한 공기... 정말 조용했다.

이재규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PES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에너지에 대해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재밌게 들었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집중이 잘 되었다. 이경섭 팀장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입소식에는 사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직접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드디어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PES(Power Engineering School) 참가자들과의 첫 식사! 밥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다양한 학과의 공대생들을 만나서 잠깐이나마 이야기를 나누니 생각보다 재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식사가 즐거웠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교육장으로 올라와 장영선 교수님의 진행으로 63명의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63인 63색의 매력이 담긴 자기소개가 흥미로웠다. 자기소개가 끝난 후 조별로 모여 조장을 뽑았다.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 조원! 다들 조용한 성격인 듯 결국 우리 조의 연장자 지환오빠가 조장이 되었다. 번해도 교환하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다시 했다. 조장을 뽑고 다시 모여 9기의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교 이후 처음 하는 반장선거에 추억이 잠깐 새록새록 떠올랐다. 여러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선거를 통하여 반장, 부반장을 선출했다. 후에 반장, 부반장 당선소감도 듣고 조별 Workshop 주제도 뽑고, 숙소 배정도 받았다. 뻑뻑한 첫 일정을 마무리하고 경북보건대학교 기숙사에서 첫날을 마쳤다.

헬 게이트 시작

7시 20분 기상. 지금은 방학인데... 학기 중 1교시 수업이 있어도 아직껏 8시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8시 20분까지 차에 탑승해야 한다니... 아침 일찍(?) 일어났다. 씻고 준비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아침 식사가 정말 맛있었다. 천천히 우아한 자세로 여유롭게 먹고 싶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여유는 나에게 사치. 급하게 아침을 먹고 차를 타고 회사로 갔다. 회사에 가며 오늘 일정을 보는데... 응? 오늘 일정? 강의, 강의, 강의의 연속이었다. 강의 듣고 밥 먹고, 강의 듣고 밥을 먹다 보니 하루 일정이 끝!

기억에 남는 강의는 논어 강의였다. 수식에 익숙해져 있고, 답이 딱 떨어지고, 실험에 익숙해져 있는 공대생들에게 논어 강의는 정말 새로웠다. 인문학적인 강의를 오랜만에 들어보니 정말 신선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였다. 캠프에 와서 원자력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가 논어의 내용과 일치하여 더욱 더 흥미를 느꼈다. 또한 유명한 신경근 교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가볍게 들을 수 있었다. 회사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숙소에서의 일정이 시작된다. 우리의 저녁 일탈을 막기 위한 Workshop인 듯 아닌 듯... 조별로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틀을 잡고 PPT를 만들고~ 우리 조의 키워드는 '남북통일'이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지 어려웠다. 그 결과는..... To be continued.....

Special Day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정. 나에게 이른 아침에 정신 없이 준비하고 나가서 바로 차에 탑승! 아침은 Skip... 역시나 강의, 강의...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선배들과 소통의 장으로 이루어진 점심식사와 사장님의 강의가 있었다. 오전에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들었고 선배와 소통할 수 있는 점심식사 시간이었다. 전공별로 조를 배정 받았고 각 조마다 선배 2~3명씩 배정 되었다. 우리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입사한지 1년차의 선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선배들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정성껏 이야기를 해주셨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어서 오후 강의 때는 잠이 쏟아졌지만 눈을 부릅떠 가면서 강의를 들었다. 3일째 계속되는 강의에 지쳤지만, 박무원 사장님의 논어 특강은 특히 재미있었다. 어제 논어 강의를 한번 들은 후 다시 듣는 논어 강의는 조금 더 쉽게 와 닿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들을 폭넓게 많이 해주셨다.

저녁식사 후에는 '남녀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라는 말에 따분할 줄 알았는데 이명길 코치님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두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좋은 팁도 많이 얻었다. 20대의 연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을 듣고 그동안 나만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았다. 재미도 있었지만 인생의 숙제를 받은 기분으로 강의가 끝났다. 숙소에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모두들 Workshop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맛있는 야식을 먹으며 PPT를 마무리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웃으면서 즐겁게 완성했기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PES의 나들이 1

이틀 동안 현장견학이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강의로 들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하동화력발전소로 출발했다.

발전소에 도착한 후 모두 강당에 모여 짧은 영상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3일 동안 학습한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니 이해하기가 쉬웠다. 주제어실, 터빈, 전방대 등을 보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고, 새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다.

경주로 이동하기 전에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 댁에 들렀다. 나는 '토지'를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으로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설명을 듣고 각자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투호, 제기, 팽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체험도 하고 조별로 사진도 찍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최참판 댁에서의 추억 하나를 남겼다. 경주로 이동하여 불국사와 안압지를 구경했다. 경주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왔었고 작년에도 여행을 왔던 곳인데 PES 동기들과 함께 해서 느낌이 새로웠다. 역시 여행은 어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안압지 야경은 정말 예뻐다. 작년에는 여름에 왔었는데, 겨울에 보는 야경과 여름에 보는 야경이 색달랐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경주에 있는 숙소로 도착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잠깐이나마 여자학우들을 위해 양선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여 교수님이라 궁금한 내용을 진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후에는 두 조씩 모여 교수님과 함께 친목을 다졌다. 다른 조와 교류할 시간이 없어서 어색했던 사람들과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PES의 나들이 2

캠프가 시작되고 첫날 이후로 나에게 아침 식사는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안 먹으면 후회할 뻔했다. 아침이라 많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조식뷔페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담아 먹었다. 평소에는 잠을 자려고 아침을 거르는데 캠프에 와서는 정말 바른 생활을 했다.

한 시간 정도 달려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도착했다. 여기서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이동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 출입 절차가 복잡했다. 신분증을 맡기고, 지문등록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 들어갔다. 발전소 건물 안도 미로처럼 복잡했다. 한참을 걸어 주제어실과 터빈실을 견학하였다. 하동화력발전소 주제어실과는 조금 달랐고, 터빈실은 비슷했다. 생각보다는 발전소 견학 시간이 짧고, 많은 부분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 주변에 주상절리를 구경하러 갔다. 어제는 산에 가고 오늘은 바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좋았다. 부지런히 주상절리를 구경하러 갔는데 공사중이구나... 안타깝게 주상절리는 보지 못하고 잠깐 바닷가로 내려가 사진을 찍었다. 바닷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물속 자갈들이 알알이 드러나 보였다.

대구로 가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광석 거리와 근대골목 투어를 했다. 혼자 왔으면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내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저녁에는 '베르테르' 뮤지컬을 봤다. 처음 보는 뮤지컬이라 눈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이틀간의 현장견학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가 반가웠다. 집을 나갔다 오랜만에 돌아온 느낌이랄까... 다음 날이 시험이라 오늘 강의는 모두들 열심히 듣고 있었다. 질문도 많았고, 쉬는 시간 토크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다른 날에 비해 오늘 일정은 조금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계획된 일정의 강의를 다 들었을 때는 종강하는 기분이 들었다! 저녁을 먹기 전, 직지사에서 둘러 함께 산책 겸 구경을 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가기 싫어하는 눈치더니 막상 도착하니 여기저기로 바빠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아쉬워서 더 많이 즐기는 모습인 듯했다. 직지사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으러 갔다.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라서 벌써부터 아쉬웠다. 식사를 하기 전 이재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정말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가슴 속에 새겨진 멋진 말이다.

Workshop이 시작되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키워드를 가지고 10개의 조가 멋지게 발표를 했다. 처음에는 공대생이라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모두들 수준 높은 발표 실력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발표를 마쳤다. 아이디어 구성부터 PPT 만들기, 발표 준비까지 멋지게 소화한 9기 동기들이 자랑스러웠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Winner였다.

Forever PES

6박 7일 일정의 마지막 날. 모두들 시험공부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모르는 것은 옆 친구에게 물어가며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다. 학교 시험기간에 벼락치기 하던 집중력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시험을 보러 갔다. 수능 시험처럼 철저하게 나의 앞, 뒤, 옆 사람들과의 시험지를 모두 다르게 준비해준 한국전력기술...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 새삼 깨달았다.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시험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다. 시험이 끝난 후 이어진 수료식. 이제 정말 마지막임을 실감하게 했다. 이재규 교수님께서 수료증과 선물을 나눠주셨다. 수료증을 받는데 모든 일정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캠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사진과 인터뷰를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다. 첫날에는 모두들 어색해서 조용했는데 마지막에는 함께 웃고 떠들며 즐기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순박하고 정겹다. 캠프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나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끝이 아니란 것을 믿는다. Forever PES!

마치면서...

캠프의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일기 형식으로 적어 보았다. 조금은 희미해진 기억으로 써 내려가면서 6박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서로 남아있던 사이를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주신 한국전력기술에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다소 힘들었던 일정이었지만 PES 9기 63명 모두 수료할 수 있어서 기뻐다.

일주일간의 캠프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우리 9기의 만남은 이제 시작이므로 앞으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꿈같은 캠프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추억은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바라면서 후기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보내 주시던 이승중 교수님, 조장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원들 챙겨주시던 지환오빠, 우리 조인 듯 아닌 듯 친화력이 좋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도현오빠, 진지한 모습 뒤에 숨겨진 엉뚱함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던 경민오빠, 쑥스러움이 많지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강혁오빠, 캠프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현애. 같은 조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소한 인연을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 주신 한국전력기술과 PES 9기 동기 모두 사랑합니다.♡ E&C



Photogenic

2015 Power Engineering School Winter Camp



한기인이 되기까지!



니가 상남자!!!



우주의 힘! 아재!!!



저 높이! 저 멀리!



우리 모두 하나되어!



한기의 별!



세상의 중심! 2조!



안압지를 지키는 해태들!



꿀단지!



아... 또 어디 갔어?



고리현장

한마음 컬처데이 행사를 마치며

Culture Day



고리현장사무소는 2016년도 컬처데이(Culture Day) 행사를 지난 6월 16일 실시했다. 이번 컬처데이 행사는 족구시합, 영화 또는 스포츠경기 관람 등 그동안 많이 실시했던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부산에 거주하며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고 현장 고유의 자긍심도 고취할 겸 '2016 부산 국제모터쇼' 관람과 같은 이색적인 아이템으로 구성해 보라는 한일남 소장님의 특별 제안에 고민스러웠다. 그러던 중 당구가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전한 여가 및 스포츠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와 퇴근 후 당구를 취미로 즐기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제1회 고리현장 당구대회'를 컬처데이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당구와 같은 Indoor Sports 보다 Outdoor Sports를 선호하는 직원들을 위해 박용성 부장의 경험과 섬세한 안목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달맞이길 문탠로드'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문탠로드는 달빛을 받으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찾자는 취지로 밤하늘의 달빛이 직원들의 벗이 되어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코스는 주변 환경이 수려한 송정해수욕장 갯바위를 끼고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와 해운대 센텀시티 그리고 마린시티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당구대회 및 문탠로드 트레킹

발전소 인근에서 개인별로 점심을 해결하고 집결지인 송정해수욕장에 도착했다. 기념 촬영과 소장님의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이 있은 후 문탠로드 트레킹 및 당구대회로 나누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당구대회는 미리 작성된 대진표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었다. 당구 200점 이상의 고수 테이블과 150점대, 100점대, 50점대 테이블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경기는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50점대에서 교묘한 심리전, 자신감 있는 리액션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져 경기시작 3시간이 넘어서야 80점대 초고수(?) 김동수 대리의 회심의 럭키샷으로 당구 큐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시간 내에 결판을 내지 못하고 늘어진 50점대 경기를 구경하던 고수들은 십시일반 참여하여 한 점이라도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밀어치기(오시), 끌어치기(히끼), 얇게치기(나미), 흔히들 말하는 쫄다마 치는 방법과 자세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실력과 눈치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수준급 별점(빠킹)으로 인한 초보자들의 오묘한 숨씨에 박장대소로 응수하는 정일호 부소장님의 견제(겐세이)는 시간끝

기와 상대방의 정신을 흐트리기에 충분했다. 철저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당구경기는 시간이 흐르자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탄식이 당구장에 울려 퍼졌고, 자신의 실력에 걸맞지 않게 들어간 환상의 예술구가 마치 정확한 길을 보고 쳤다고 주장하는 일부 참가자들의 주장에 웃음은 좀체 그칠 줄을 몰랐다. 비상근무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한 새로운 참가자들과의 게임은 계속 되었고, 자칭 당구의 신 이승하 차장은 "가급적 요행(후루꾸)을 쳐서 상대방의 기를 죽여야 한다", "상대방의 큐미스(빠사리)는 박장대소로 응수해야 된다" 등등 끊임없는 당구방법 입담으로 참가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를 즐기게 만들었다. 이날 당구경기는 오랜만에 현장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당구 큐를 통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뒤풀이

새로 부임하는 안은우 운영분야책임자와 본사로 복귀하는 이영식 운영분야책임자간의 환영 및 환송회를 겸한 뒤풀이 행사는 고리현장 컬처데이 행사를 한층 더 뜻깊은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아쉬운 석별의 정과 설레고 기대되는 첫 만남의 정이 교차하는 뒤풀이 행사에서는 치열했던 당구경기 우승자에게 소정의 승리기념품(스포츠양말)도 증정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체적인 일정과 예산을 조율해주신 박용성 부장님과 일부 선수들의 터무니 없는 사기당구 실력 점수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정리하여 당구 대진표를 작성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박한 상품을 준비해 주신 백발의 신사 박철돌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고리현장 및 협력사 직원들(총 29명)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컬처데이 행사는 고리현장의 탄탄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끝내기에는 아쉬운 문화행사였다. E&C



일과 후 자기개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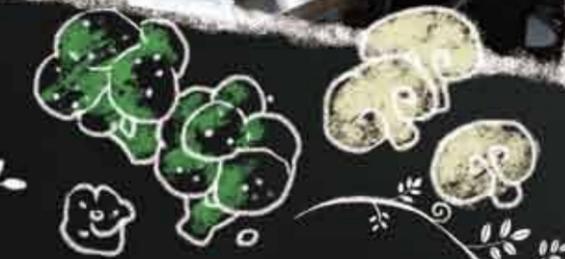
저녁이 있는 삶!

회사는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6년도 제1차 일과 후 자기개발 프로그램 과정을 6월 13일 개강했다. 제1차 일과 후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양적인 팽창과 소비의 풍요에서 정신적 만족과 자연을 꿈꾸는 삶으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커피 바리스타, 카페베이커리, 막걸리교실, 요가교실 과정을 개설했다.

또한 김천지역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간 등으로 늘어난 개인시간들을 가치 있고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 경북보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강 첫날에는 경북보건대학교 이은직 총장이 직접 강의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자기 개발 및 지역상생 노력을 격려했다. 회사는 1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이상의 호응과 지원자가 쇄도함에 따라 운영 횟수 등을 확대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가져오게 할 계획이다.



Cooking Class



C ommunication

한 장의 달력이 넘어가도 날씨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8월의 한낮 매미도 심심한 듯 울어댁니다.
태양 빛이 가장 강렬하다고 외출을 삼가 하라는 오후 3시.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뭔가를 시작 하기에는 너무 늦고
늦었다고 포기 하기에는 아직 이른 오후 3시입니다.

약속 시간으로도 잘 선택되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오후 3시.
늦은 점심을 먹기도, 이른 저녁을 먹기도,
그렇다고 커피를 마시기도 어정쩡한 오후 3시.

직장인에겐 자꾸만 벽시계에 눈이 가는 시간,
평일이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 올 시간,
주부라면 저녁 찬거리를 걱정하는 이 시간에
나른한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이런 안부 조차 존재하지 않겠지요.
별일이 일어나도 그렇구나 하고 마는,
신경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별의 별 일들이 많은 세상에
별일 없기를 바라며 물어오는 안부전화,
별일이 없이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재미없고
지루한 일상의 연속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별일 없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 인가를 깨닫는 오후 3시.

당신도 별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흐드러진 메밀꽃과 장터기행 - 봉평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



봉평의 늦여름에는 메밀꽃이 지천이다. 메밀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순에 심어 8월 말이면 꽃을 피우고, 9월 초에 절정을 맞는다. 봉평은 메밀의 고장이다. 메밀이 꼭 봉평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만 '메밀의 고장'이라는 수식이 붙는 것은 봉평이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소설가 이효석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봉평을 배경무대로 하고 있다.

01 봉평의 메밀밭 02 메밀밭의 포토존 03 봉평천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

메밀꽃 필 무렵 열리는 효석문화제
강원도 특유의 청정한 물과 그윽한 산세, 오붓한 조막들 풍광이 봉평에는 잘 간직되어 있다. 이러한 봉평의 자연은 이효석의 감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터인데, 그 감성의 원천에 메밀꽃 또한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봉평에서는 메밀꽃의 만개에 맞춰 효석문화제가 열린다. 효석문화제는 문인을 기리는 축제이니 만큼 문학의 밤 행사와 백일장을 비롯 소설 속의 주인공인 허생원과 동이에 관한 갖가지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소설에 나오는 시간적



04



05 06



07



08



09

마련되어 이곳을 찾는 여행객이 가산 문향의 정취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타지방 축제들이 대체적으로 동적인 것이 많다면 봉평의 효석문화제는 정적이다. 메밀밭을 비롯한 강원도 산간 마을의 수려한 풍경과 거기서 비롯되는 정서적 감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봉평 메밀꽃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이다. 소설 속의 시점인 1930년대의 봉평 장터를 재현하고 전통 먹거리 행사장도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메밀을 소재로 한 메밀묵, 메밀막국수, 메밀전, 메밀주를 맛볼 수 있다.

2016 평창 효석문화제 9월 2일~11일 / 홈페이지 www.hyoseok.com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봉평장의 파장 무렵.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생원은 장사가 시원치 않아 속이 상한다. 안면이 있는 조선달에 이끌려 찾은 곳은 충주집. 거기서 나이 어린 장돌뱅이 동이가 충주집과 짓거리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대낮부터 농탕질이냐고 허생원은 따귀를 올린다. 동이는 별 반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난다. 허생원은 마음이 개운치 않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조선달과 술잔을 주고받고 있는데 동이가 황급히 달려온다. 나귀가 밧줄을 끊고 야단이라는 것이다. 허생원은 자기를 외면할 줄로 알았던 동이가 그런 기별을 전하자 여간 기특한게 아니다. 나귀에 짐을 싣고 다음 장터로 떠나는데 마침 그들이 가는 길가에 흰한 달이 떠올랐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메밀꽃의 정경에 감정이 동했음인지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몇 번이나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한때 경기가 좋아 한뭇천 두둑이 잡은 적이 있었다. 그것을 노름판에 날리고 실의에 잠겼던 어느 여름밤, 그날 그는 토방이 무더위 목욕을 하러 개울가로 갔다. 달이 너무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레방앗간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다. 성서방네는 파산을 한터여서 처녀는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허생원은 처녀와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날 처녀는 빗쟁이를 피해 줄행랑을 놓는 가족과 함께 떠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끝에 허생원은 동이가 편모만 모시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밧을 헧디던 허생원은 나귀 등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고 동이가 건져 준다. 허생원은 마음

에 짐작되는 데가 있어 동이에게 물어보니 그 어머니의 고향 역시 봉평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동이가 자기와 같은 왼손잡이임을 눈여겨 본다.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朝光)>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메밀꽃이 피었던 달밤, 한 여인과 맺은 단 한 번의 사랑의 추억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장을 떠돌며 살았던 한 장돌뱅이의 애환과 인간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삶의 단면을 그려낸 작품이다. 달밤의 메밀밭을 배경으로 설정한 시적인 묘사가 이효석의

04 자작나무 숲에서는 아이들의 시화전이 열린다 05 소설에 등장하는 봉평의 나귀 06 메밀전과 메밀국수 등 전통 메밀음식을 맛볼 수 있다 07 소설에 등장하는 물레방앗간을 재현해 놓았다 08 이효석 생가 09 축제기간에는 국악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배경(보름달 뜰 무렵의 메밀꽃 길)과 메밀밭 이외의 인위적 설정들(물레방아, 봉평장날)도 맞춰져 있다. 물레방앗간에서 효석의 생가까지는 약 1.5km 정도. 가는 길 양쪽으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효석 생가의 모습은 희미하기만 하다. 답사객들이 모여들면서 마당에 있었던 외양간을 헐고 지붕도 양철판으로 바꾸었다. 대신 읍내 쪽 700m 지점에 모형의 생가가 복원되었다. 보름달이 뜰 무렵 메밀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국악 공연과 영화감상, 소설의 등장배경(여울목 - 노루목고개 - 문화비 - 유품전시장 - 충주집 - 가산공원 - 물레방아 - 이효석 생가)을 둘러보는 답사코스



10

서정적 문체와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만남과 헤어짐의 구도를 갖춘 이 작품은 유랑인의 삶이 “길”이라는 무대에서 삶의 상징성을 띤 이야기로 전개된다.

평창에서 가장 큰 장이었던 대화장.

소설에서 허생원은 방울소리 처량한 나귀를 끌고 동이와 함께 봉평장에서 대화장까지 70여리 길을 달빛을 등불 삼아 타박타박 걷는다. 이효석과 메밀꽃, 영동고속도로에서의 근접성 등으로 지금은 봉평이 더 알려져 있지만, 해방 전후만 해도 대화장은 이 일대의 가장 큰 장이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만기요람>은 전국 8도 1000여 개의 장터 중에서 큰 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평창을 대표하는 장이 대화장이었다. 평창군은 지형상 산악이 많은 고지대로 예로부터 교통이 불편하여 상업 활동이 부진했다. 그러다 보니 물산이 넉넉하지 않았고, 장돌뱅이나 보부상들이 짊어 나르는 물품들에 의존해야 했다. 보부상들이 물려드는 평창의 물산집하지가 대화장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화장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진부나 형계, 봉평보다 고속도로의 인접성이 떨어진 것이 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의 토속적인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산간에서 채취된 각종 산나물과 농산물이 물품의 주를 이루는데, 장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강원산간의 먹거리들이 호기심을 끈다. 메밀전병과 수수부꾸미, 울챙이국수 같은 토속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대화장은 4일, 9일에 열린다.



11

봉평의 다른 볼거리, 홍정천과 허브나라

봉평면에서 휘닉스파크로 가는 길목에 물 맑은 홍정계곡이 있다. 강원도에서도 평창, 평창에서도 봉평은 특히 아기자기한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홍정천 주변은 봉평의 주요 펜션 단지 중 하나이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투명한 옥빛 계곡을 거슬러 조금 올라가다 보면 허브나라 농원이 나타난다. 명칭대로 이곳에는 100여종의 허브들이 오밀조밀 심어져 있는데 단순히 농원이라기 보단



12

10 물이 맑고 차기로 유명한 홍정천 11 폐교를 개조해 만든 무이예술관 12 미술과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13 허브나라는 봉평 여정의 빠질 수 없는 볼거리다 14 허브화분과 허브를 이용한 각종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15 향긋한 허브가 농원 안에 가득하다

공원형태의 안락함을 제공한다. 조경이나 편의시설이 제법 잘 갖추어져 있고 약간은 이국적인 분위기여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찾기에 특히 좋다. 농장 내 ‘허브가든’에는 차, 약용, 공예용 등으로 분류되어 대략 여덟 군데의 구획에 허브가 심어져 있으며, 허브를 이용한 음식이 제공되는 노천카페와 레스토랑, 허브 기념품점 등이 발길을 잡는다. 가을, 향긋한 허브향에 취해 허브나라의 꽃길들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통나무집에서의 숙박도 가능하다. **E&C**



13



14



15

허위, 죽어서 지천(芝川) 방암산(舫岩山) 미좌원(未坐原)에 묻히다



일기분류 : 의병일기
출 전 : 왕산허위선생거사실대략 (旺山許舊先生舉義事實大略)
시 기 : 1908년 9월 24일 ~
인 물 : 허위, 박상진, 장지연
주 제 : 의병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허위(許葦)의 형이 집행된 이후 옥졸은 칼을 풀어 놓고 모자를 집어 던지며 자신이 원치 않게 지사를 사형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을 자책하고 있었다. 아울러 허위가 사형당하던 날 감옥의 죄수 몇 백 명은 모두 통곡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허위가 사형당했다는 소식은 감옥 밖으로 전해졌고 금새 도성 안에는 애도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선생의 문하생이었던 박상진(朴尙鎭)은 선생의 시체를 거두어 산골짜기에 임시로 만든 집에 모시고 4일간 초상을 치루었다. 하지만 일본측에서는 허위에 대한 상을 대대적으로 치르는 것을 막았다. 게다가 상주가 될 사람은 마침 전염병에 걸렸던 탓에 조문객들이 몰려드는 속에서 초취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럼에도 초중에 쓸 물건은 종로 장사꾼들이 각자 각출하여 성의껏 만들어 와서 장례는 유감없이 치를 수 있었다. 그만큼 허위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허위는 그 이듬해인 1909년 5월에야 지천(芝川) 방암산(舫岩山) 미좌원(未坐原)에 묻힐 수 있었다. 이때 오랜 친구였던 장지연(張志淵)은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나를 빼놓고 먼저 가는가!" 하였다.

◆ 의병장 허위의 일생

허위는 철저한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유생으로서 근왕적 충의사상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관직에 나간 후 신학문을 접하면서 의식체계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허위는 자주적 개화사상을 수용하여 스스로 의식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초기에는 위정척사에 의한 춘추대의를 명분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나 1905년 이후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서의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병투쟁사상 초유의 대작전이었던 13도창의군에 의한 서울진공작전 당시 군사장으로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물론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돌려 일제 침략의 불법성과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 의병투쟁을 단순한 무력투쟁이 아닌 국제사회를 인식한 항일투쟁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그는 의정부 참찬으로 재직 시 10개 조의 국정 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진보적인 개혁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허위는 의병투쟁에 대해 오직 일본과 차마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항일의를 피력 함으로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주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자신의 의병투쟁이 비단 한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한국이 독립이 되어야 동양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동양평화론을 강조하였다. 이에 그를 심문하던 아카시 일본군 헌병 사령관은 그의 인물됨에 감복되기까지 했다. 허위는 1896년 의병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08년 일본군에게 체포 당할 때까지 항일 투쟁을 계속했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그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할 때에도 당당하게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항일의지와 기상을 불태움으로서 후대에 애국정신의 전형을 남겨 주었다. E3C

'원전 수출' 통한 '한류'를 기대하며

최근 미국 뉴욕에서 이틀간 열린 'KCON 2016 NY(케이콘 2016 뉴욕)'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뉴욕뿐 아니라 중서부 및 인근 멕시코, 캐나다 등지에서 4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을 주제로 하나가 됐다.

올해 케이콘 행사는 3월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4월 도쿄에 이어 6월 파리, 뉴욕까지 총 10만명 가까이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도 대대적인 보도를 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 역시 K팝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한류'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단순 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떡볶이와 호떡 등 한국의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한국식 메이크업을 배우며, 한국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됐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벅찬 감정이 들었다.

한류가 지닌 힘을 느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기자는 지난해 11월 멕시코 서부 태평양 연안 콜리마주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만사니요 천연가스(LNG) 터미널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2012년 6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만사니요 LNG 터미널 사업은 해외 LNG 가스 플랜트를 최초로 직접보유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연간 최대 380만톤의 LNG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중소기업과 이룩한 최초의 해외 LNG기지 투자로 터미널 운영부터 설계, 감리, 건설관리 등 기술수출의 모범사례로도 꼽힌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멕시코 노동부 장관은 LNG 터미널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자긍심에 엄지손가락을 쫓겨세웠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당당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LNG 터미널 현장에는 이미 한류가 소리 없이 퍼지고 있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 소리 없이 한류를 전파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는 단순히 문화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케이콘 행사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지난해 5500억원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다. 한류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수출 증대 효과는 45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성장동력인 원전 수출은 활력을 잃은 우리 수출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커지는 에너지 수요에 2030년까지 약 430기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국내 원전 8기가 건설되면 핵연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한 스마트원전 기술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원자력, 화력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공기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발전 설계 부문 해외 매출 순위에서 2012년 이후 1위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약 1200조원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원자력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에서 나아가 에너지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전 신뢰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 이들을 갖춘 한국형 원전 수출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C



매미 소리는 왜 시끄럽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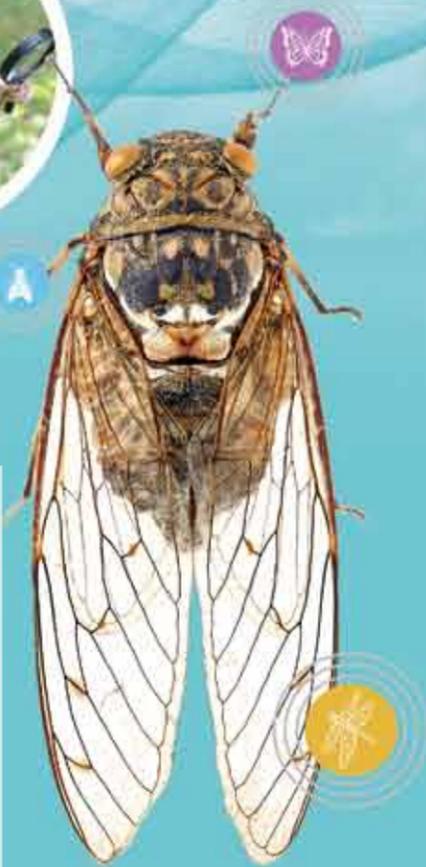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미를 아주 친근하게 여겨왔다. 애벌레인 굴뻤이가 땅속에서 올라와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펼치며 매미가 되는 모습 때문에 불교에서는 '해탈'을 상징했고, 도교에서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기 때문에 '재생'을 상징하기도 했다. 유교에서는 매미를 덕이 많은 곤충으로 여겨서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쓰던 모자에 매미 날개 모양의 장식을 달아 왕과 신하가 사용하기도 했다.

영조 때의 문신이자 가객인 이정신(李廷薰)은 매미의 고어인 '매암'과 '쓰르람'의 울음소리를 듣고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다음의 시조로 나타내기도 할 정도였으니,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매미를 대단히 기분 좋은 생물로 여겨왔음이 확실하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山菜)를 맵다가 박주(薄酒)를 쓰다가.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사니 맵고 쓴 줄 몰라라." 하지만 최근에는 매미가 그간의 친근함을 넘어 여름밤 쇠를 깨는 듯한 큰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밤잠을 방해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매미는 땅속에서 애벌레인 굴뻤이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 땅 위로 나와 허물을 벗고 예쁜 어른벌레가 되어 한 달 정도 살면서 짹짹하고 알을 낳은 후 일생을 마무리 한다. 매미의 7년이 넘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 한 달 정도를 어른벌레로 살아가는데, 이 시기는 종족 번식에 아주 중요하다. 암수가 만나 짹짹하고 알을 낳아야 하는데, 이 때 암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암컷을 부르는 수컷의 큰 울음소리인 것이다. 곤충에서는 소리가 다른 종을 구분하고 같은 종에서 암수 간에 소통하는 중요 수단이라서 소리발생 장치와 청각기관이 발달된 곤충들이 많다. 이 곤충들 중에서 매미는 대표 격으로 암수 간에 구애신호용으로 소리를 내고 듣는다.

곤충들이 내는 소리의 주파수는 수백 Hz에서 100kHz 이상까지 광범위한데 매미의 울음소리는 3~16kHz의 범위에 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대부분 진동음(vibration)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매미의 배딱지 속 진동막, V자 모양의 근육인 발음근과 공명실 역할을 하는 배의 공기주머니 등이 소리를 만들고 크게 증폭시킨다. 매미의 진동음은 발음근이 진동막을 빠르게 진동시켜 발생되고, 이때 진동음의 주파수는 진동막의 진동 속도와 2차적인 복부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수컷은 소리를 내면서 복부를 최대한 신장시켜 안쪽의 공기주머니에서 소리의 울림을 최대화해 음량을 크게 한다. 이렇게 커진 소리는 배딱지와 복부 사이가 벌어지면서 생긴 틈을 통해 밖으로 울려 퍼진다. 수컷 매미의 소리를 듣는 암컷매미의 고막은 같은 종 수컷이 내는 울음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암컷은 수컷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날아가 얹고 마지막에는 시각적인 신호로 서로



를 인지해 암수 간에 짹짹하게 하게 된다. 종에 따라서는 암수 간에 소리 외에도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추가로 사용해 소리와 함께 서로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여름 밤에 계속되는 매미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매미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알고 있지만, 매미는 아무 때나 울어서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잘 진화해 왔다. 사실 매미가 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한 가지는 체온이 특정 범위에 맞춰져야 한다. 즉 주위 온도가 일정치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계온도 이상이 돼야 발음근이 작동하며 그 온도는 종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는 주위의 밝기다. 밝기, 즉 조도가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일 때만 우는 종들이 많다. 어떤 매미는 햇빛이 강한 날에 잘 울며,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에는 잘 울지 않는다. 또 같은 종일지라도 태양의 조도가 높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울고, 반대로 조도가 낮은 경우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울기도 한다. 주변 온도나 조도 차이 때문에 매미 종별로 우는 때가 다르며, 또 환경변화에 의해 본래는 울지 않던 시간대에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에는 한반도에 13종의 매미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됐고, 이 중에서 도심에서 소음공해를 주로 일으키는 종은 말매미(*Cryptotympana atrata*)다. 말매미는 우리나라 매미 중 가장 큰 종이다. 주로 평지에서 살고 날씨가 맑고 태양빛이 강한 날에는 매우 우렁차게 운다. 한 마리가 울면 주변의 말매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우는 성향이 있지만 흐린 날에는 울지 않는다. 7월 중순부터 나타나며 장마가 끝나고 8월 무더울 때에 가장 기승을 부린다. 말매미는 여름철 소음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유명한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말매미는 플라타너스라 불리는 양버즘나무와 빛나무를 좋아하는데, 이 나무들이 가로수와 정원수로 도로와 아파트 등에 많이 심어지면서 말매미가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말매미가 많이 번식해 다른 매미들을 제치고 우점종(優占種)이 됐고, 한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말매미들이 출현하면서 큰 소리로 동조화된 합창을 선사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열대야가 심한 대도시의 밤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야간에 밝은 가로등 불빛들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말매미의 소리는 단조롭고 크기도 큰데다가 합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매미 소음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말매미 소리의 길이는 약 20초로 음압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상승부', 커진 음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유지부', 음압의 크기가 작아지는 '감쇠부'로 구분된다. 상승부는 약 3초로 음의 세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영역 또한 증가한다. 진동막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더 큰 진폭으로 움직이면 진동수도 어느 정도 높아진다. 유지부는 약 15초로 음의 세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주파수영역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감쇠부는 약 2초로 음의 세기가 줄어드는 부분이다. 이때는 주파수영역



도 감소한다. 말매미가 꼬리를 들어 고막과 배딱지 사이의 틈새를 벌리는 과정이 상승부, 틈새를 최대로 벌린 상태에서 소리를 계속 발생하는 과정이 유지부, 꼬리를 내려 틈새가 좁아지는 과정이 감쇠부다. 상승부나 감쇠부보다 유지부에서 고음이 더 많이 발생한다. 말매미 소리 전체의 주파수 분석에 따르면, 소리는 약 4~16kHz의 범위에 있으며, 중심주파수는 주로 5~7kHz 사이에서 분포한다. 중심주파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피크가 매우 완만하다. 확대된 파형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감쇠하는 특징을 보인다. 10마리 수컷 말매미를 대상으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실험에서 1m 거리로 환산한 값이 약 80.5dB로 나타나 실제 사람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여름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 정서에 청량제 역할을 했던 매미 소리가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누가 이럴 줄 생각이나 했으랴! 최근 환경은 빨리 변하고, 여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전과 다르게 흥망성쇠하는 종들이 부쩍 늘었다. 올 여름에도 계속해서 도심에서 매미 수가 늘어나고 밤중에 소리가 더 커질지 지켜볼 일이다. 자연은 특정 생물의 독주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인간이 좋아하는 정도의 소리를 내는 매미로 돌아갈려나 기대해 볼 일이다. EBC

Culture

Exhibition

씨몬스터전 : 바닷속 과학이야기

기간 : ~ 9월 2일 장소 : 부산 BEXCO 제2전시장



모든 생명의 요람, 바다

잘 알려지지 않은 척추 동물들의 신체 구조와 기관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미지로 둘러싸인 바닷속 해양 생물들의 경이로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시는 해부학적 비교 방식과 *플라스티네이션 보존처리 기술로 해양 척추동물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척추 동물이 어떻게 바다 생활에 적응했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이 진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플라스티네이션(Plastination) 기법 :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은 생물 표본에 수분과 지방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실리콘 에폭시나 합성수지 등 반응성 플라스틱을 주입하여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생생하게 영구 보존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법으로 하나의 표본을 완성하는 데에는 약 1500여 시간이 소요되며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이로운 박제 기법은 해부학적 의학 지식과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머(polymer)가 이뤄낸 최첨단 기술로서, 인체와 해양동물의 장기나 신체를 원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시켜 준다.

<http://seamonsters.co.kr>

Musical

그날들

기간 : ~ 11월 3일 장소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1992년, 청와대 경호실. '그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청와대 경호원이 된 '정학'은 자신과는 다른, 자유분방한 동기 '무영'을 만난다. 신입 경호원 중 최고의 인재로 꼽히던 '정학'과 '무영'은 때론 라이벌이자 친구로 우정을 쌓아간다. 한중 수교를 앞두고 그들에게 내려진 첫 임무는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녀'를 보호하는 일.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다. '무영'과 함께.

2012년, '그날'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인 청와대. 경호부장이 된 '정학'에게 전해진 다급한 소식. 대통령의 딸 '하나'와 수행 경호원 '대식'이 사라졌다. 마치 20년 전, '그날' 처럼. 그들의 행방을 쫓는 '정학' 앞에, 사라졌던 '무영'과 '그녀'의 흔적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는데...

<http://www.insightent.co.kr>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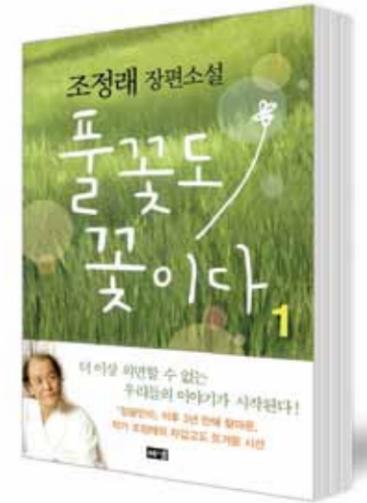
플꽃도 꽃이다

성적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100년의 약속, 교육을 고민한다! 세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장기 프로젝트,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조정래 장편소설

분단과 전쟁으로 계속된 삶의 피폐함을 극복하고 입에 풀칠하고 내 자식 거두느라 급급했던 전쟁 세대 이후, '배우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위기의식 아래 모두가 '자식 공부'를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교육만을 위해 발버둥치던 50여 년, 아버지 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그 자식들은 결국 해냈을까?

1970년대 후반 하나뿐인 아들의 입대를 지켜보며 자신이 훈련소를 떠날 때 꿈꾸던 통일이 여전히 오지 않은 것을 한탄하던 조정래 작가가 군부 정권의 불법과외 단속 소식을 들으며 앞으로 손자 시대에는 불법과외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한 기대에 배신당했음을 뼈저리게 체감한 것은 손자를 맞이한 후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온갖 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면서부터였다. 그 손자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현실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작가는 『정글만리』 집필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각급학교와 사교육 현장을 찾아가 관련 종사자를 취재한 후 소설의 틀을 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에 돌입해 원고지 2,300매의 장편소설 『플꽃도 꽃이다』를 세상에 내놓았다.

조정래 저 | 해냄



Movie

스타트렉 비욘드

위험한 미션들을 무사히 수행한 후 평화롭게 우주를 항해하던 거대 함선 엔터프라이즈호. 최첨단 기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던 중 엔터프라이즈호와 대원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사상 최대의 공격을 당한다.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즈호는 순식간에 붕괴 되고, '커크' 함장(크리스 파인)을 비롯한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낯선 행성에 불시착하게 된다. 멈추지 않는 적의 공격, 함선과 팀원, 모든 것을 잃은 엔터프라이즈호 대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준비는 끝났다!

사상 최대의 반격이 시작된다!

상영중



KEPCO E&C News



● 제1차 '더새롬 아카데미' 개최

2016년 제1차 더새롬 아카데미가 지난 6월 21일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새롬 아카데미는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창의혁신리더로서의 기본지식 함양을 위한 창의혁신리더그룹의 전문능력 제고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더새롬 창의혁신리더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스킬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와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외부 갈등관리 전문가인 함선희 강사의 특강이 있었다. 아울러, 우리 회사의 먹거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CEO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구원 사장은 특강을 마친 후 "조직운영 및 갈등해소에는 임직원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내 행사 및 일상적인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여 경영현안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충 등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나눠 달라"고 당부했다.



● 이동근 감사, 신보령화력 1,2호기 현장 방문

이동근 감사는 지난 6월 22일 신보령화력 1,2호기 현장을 방문했다. 김동규 사업책임자와 권동식 현장소장으로 부터 사업 진행 현황 및 현장조직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한 이동근 감사는 "국내기술 최초로 10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지원용역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기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책임자 및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협력사 등의 대외업무에 있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윤리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중부발전 황순홍 신보령 1,2호기 본부장을 방문하여 석탄화력산업계 주요현안과 우리 회사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제144회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제144회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6월 28일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주요 직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문화 전문가 정수진 박사가 강의를 했다. 정수진 박사는 국내 원자력 안전문화 동향 설명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과 경영진의 리더십이 동반되었을 때 바람직한 안전문화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부적합 사항 보고제도와 한기 보고체계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의 한기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었다. 박구원 사장은 "원자력본부와 원자로설계개발단이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전 직원이 안전문화 인식을 새롭게 하여 원전 설계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회사는 6월 10일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KOSOR)과 상호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재방호 연구 및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활동 수행, 사고-극한환경 구현 시험 및 인증분야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하여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화재방호 및 극한환경 재해 대처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지식과 엔지니어링 실무 및 수행 경험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현재 우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원전 광역화재를 고려한 정량적 화재영향평가 기술개발 및 화재 PSA(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분야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의 안전성평가 연구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그동안 축적한 원전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기술을 타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수주

회사는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 용역을 지난 6월 2일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148.2억원이며 향후 5년간(2016.6.2~2021.8.31) 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순수 국내기술 기반으로 1000MW급 증기발생기 4대(호기당 2대)를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원전 안전성과 운전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리 1호기(600MW), 한울 1,2호기(950MW), 한울 3,4호기 및 한빛 3,4호기(1000MW)에 이어 국내에서는 8번째로 추진된다. 우리 회사는 교체용 증기발생기 제작 기술검토, 임시 저장고 신설 설계, 증기발생기 제작 및 교체 시공기술 조정, 인허가 적기 취득 지원, 최적 성능 도출을 위한 시운전 기술지원 및 As-Built 등의 역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가동 원전의 대형기기 교체사업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 UAE BNPP 현장 안전보건환경(HSE) 교육 실시

회사는 UAE BNPP 현장에서 안전보건환경(HSE) 교육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다. BNPP 현장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재해 또는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HSE 개요, BNPP HSE 소개, 현장 안전문화, CPR 이론,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섭씨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UAE 날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장정지 질환에 초기 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장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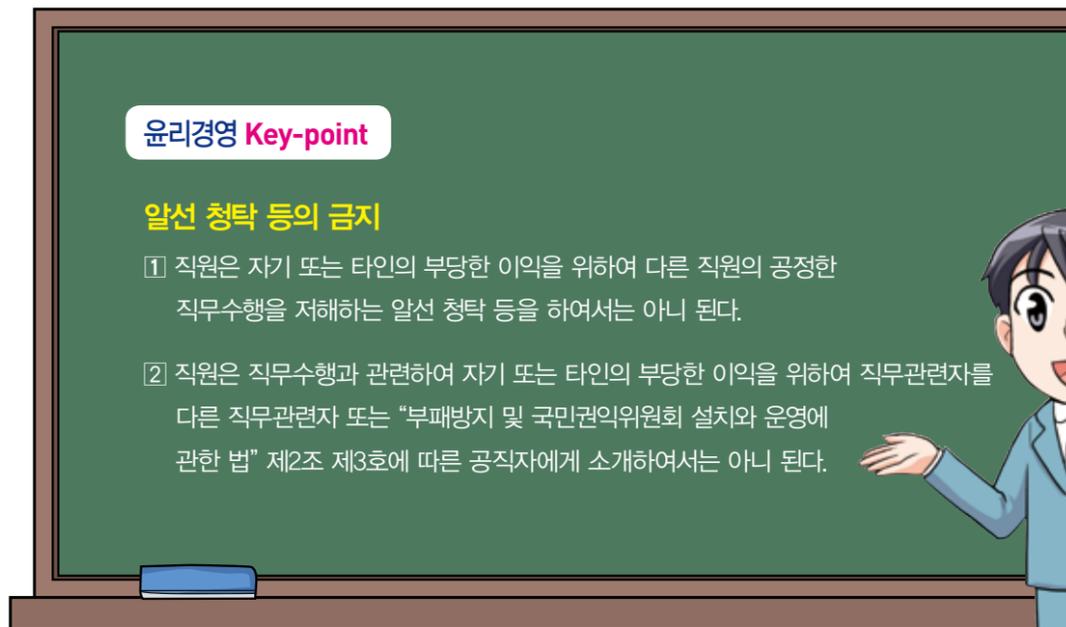


잘 봐주면 안되나요?

| 심사위원에게 특정 업체 거론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제가 생각할 때 B업체가 성실해 보여서 한마디 해주려고 한 것 뿐인데...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례에서처럼 외부 심사위원을 상대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해 달라고 한 행위는 윤리행동강령 위반입니다.

Inside Outside

참사랑봉사단

경영관리본부



회사는 지난 6월 16일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경영관리본부 참사랑봉사단 30여명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부부장애인(지체 3급) 농가의 양파 수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사는 2011년부터 김천지역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농가 수입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여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회사 참사랑봉사단은 김천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최종호 처장 자녀 : 6월 18일 대전 호텔 ICC
- ▶ 원자로)사업책임자실 김세창 상무 자녀 : 6월 18일 더팔래스호텔
- ▶ 원자력기술그룹 오훈구 사원 : 6월 18일 한양대동문회관
- ▶ 플랜트)사업책임자실 임선환 처장 자녀 : 7월 2일 리츠칼튼 서울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하무형 부장 자녀 : 7월 2일 섬유센터
- ▶ 노사협력실 유선용 상무 자녀 : 7월 3일 TAWEE WATTANA, BANGKOK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이익석 대리 : 7월 9일 마리드블랑

부음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장영우 상무 장모상 : 6월 28일 분당서울대병원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조인석 부장 모친상 : 6월 28일 성남시 장례식장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양천우 부장 장인상 : 7월 4일 익산 원광대학병원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이상원 부장 모친상 : 7월 6일 안동 안동병원
- ▶ 품질안전환경처 조인완 부장 모친상 : 7월 8일 일산병원
- ▶ 정보보안전략실 박균석 부장 부친상 : 7월 9일 인천성모병원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박종철 차장 장인상 : 7월 10일 서울아산병원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박기신 부장 부친상 : 7월 15일 안산 고대병원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박기수 부장 장모상 : 7월 18일 여주 학소원장례식장
- ▶ 품질안전환경처 강태욱 부장 부친상 : 7월 18일 김해 김해중앙병원

동우회 동정

결혼

임흥국 회원 삼녀 : 7월 3일 교통회관

부음

오명수 회원 모친상 : 7월 15일 포항의료원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 교환 후 운행 중 하루 만에 엔진오일 코크가 빠져 엔진오일 누출로 인한 엔진고장 차량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엔진오일 교환 후 코크가 빠져 엔진오일이 누출된 차량

정 씨(경기도 안양시)는 2008연식 A차량 소유자로 2016년 1월 23일 오후 3시~4시경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정 씨는 오전 6시경 경부고속도로로 하행선 천안부근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속도가 감소하여 안전지대(갓길)에 주차하였다.

이후 견인차를 현장으로 불러 확인한 결과,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가 빠져 오일 누출로 인해 엔진이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정 씨는 엔진오일을 교환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할까?

Answer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령에 따른 무상 수리 가능

자동차정비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었으며 이중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경우도 정비업자가 엔진오일 교환 후 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이 누출되어 엔진 소착(이물질이 베어링 속에 끼어들어 눌러 붙게 되는 현상)으로 고장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할 때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의 경우는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의 경우는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의 경우는 1월(30일)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C**



순리의 교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자리가 편한 것은
앞서서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투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중한 고귀한 자리입니다.

나무가 천년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피고 지고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꽃피고 난 뒤, 열매가 맺는 법.. 그 반대는 없습니다.
결코 후행이 선행을 앞지르는 역행은 절대 없기에
반드시 후배가 선배를 지탄하는 역행도 없기를...

글·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